

이슈브리핑 vol.334 2025년 12월

ISSUE
BRIEFING



국가주도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필요하다

연구책임

이중섭 선임연구위원

요약

- 한국은 2019년에 고령인구의 비율이 14.9%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40년에는 33.9%, 2067년에는 46.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중국, 독일, 한국, 일본 등도 2030년에 고령인구의 비율이 30%에 달하고 2050년에는 3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확대는 불가피함
-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수요의 확대에도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IT 스마트 기기와 돌봄로봇을 활용한 고령친화제품 시장도 급속하게 팽창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다수 고령화 국가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고령노인으로 진입하면서 고령층이 소비주도층으로 등장하여 노인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이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 스마트돌봄시장의 확대 등으로 인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도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국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현재 72.8조원으로 2010년 33.2조원에 비해 약 두배 이상 증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할 것으로 예견되고 미국도 실버경제의 규모가 2020년 2조 달러에서 2030년에는 3.5조달러로 확대되어 전체 GDP의 절반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 유럽연합도 실버경제의 규모가 2020년 3.7조달러에서 2030년 5.0조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산업에서 3번째로 높은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미래성장동력인 실버산업의 거점도시이자 R&D 핵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 전략 제시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국 등 해외수출시장 겨냥한 연구개발 및 생산·수출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 필요
-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에서 ‘시험평가’ 그리고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의 하드웨어를 집적화하여 고령친화 산업생태계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의 거점도시 조성 추진
-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는 고령친화제품 개발단지과 고령친화산업 인력양성 단지로 전문화하여 기술개발과 평가인증, 기업지원 중심으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단지는 고령친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창업교육,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물적 기반 조성
- 또한,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설립을 통해서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분양홍보를 위한 기업유치, 기업정보 및 실적관리,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투자유치 업무 총괄 지원 추진

1

고령친화산업 육성 필요성

»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친화산업 시장 확대

- 한국의 고령인구는 2019년 기준 14.9%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40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33.9%로 증가하고 2067년에는 46.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2040년 한국 33.9%↔세계 14.1%)
- 중국, 독일, 한국, 일본 등은 2030년에 고령인구의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2050년에는 3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시장 확대는 불가피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고령인구가 전 세계 고령인구의 30% 차지→2050년 기준 15억명)
※ 인구 전망을 기반으로 추산했을 경우 EU의 실버 경제 규모는 매년 약 5%씩 증가하여 '25년에는 5조 7,0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치매노인, 독거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 노인이 증가하는 돌봄수요의 확대를 초래함으로써 노인 관련 요양, 의료 등의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1〉 '20년과 '30년의 실버시장 규모

구분	주요내용
미국	2020년 약 2조 달러에서 '30년에는 약 3조 5,000억 달러 예상
일본	2020년 100조 엔(약 7,000억 달러)을 넘어서 '30년 약 9,000억 달러 예상
중국	2020년 약 9,000억 달러 '30년 약 2조 2,000억 달러 예상
EU	2020년 3조 7,000억 달러에서 39% 증가한 '30년 5조 달러 예상

자료 : 한국무역협회(20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3) 재인용

» 생산인구 감소와 돌봄인력의 부족에 따른 대체 돌봄체계 마련 필요

-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수요의 확대에도 생산 가능인구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IT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고령친화제품 시장도 급속하게 팽창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2년 73.4%로 최정점에 도달한 이후 2040년에는 56.3%, 2067년에는 45.4%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적으로는 2014년 65.6%에서 2067년 61.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인부양비는 2065년 한국 100.4%, 일본 75.9%, 독일 55.6%, 미국 4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돌봄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CT기술을 접목한 돌봄의 과학기술 시장 확대 전망 (돌봄로봇, 웨어러블ICT, 이동지원 IRT 등)

» 신노년세대의 등장과 주력소비층 확대

-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가진 베이비붐세대의 유입으로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이끄는 주력세대로 등장
- 다수 고령화 국가들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진입하여 주요 고령소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 산업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 미국 고령세대의 연평균 소비지출액은 전체 평균의 88.8%, 일본 100.7%, 이탈리아 84.4%, 스웨덴 85.9%로 전체 평균소비지출액에 근접한 수준

-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도 2020년부터 65세 노인인구에 편입됨으로써 소득이 불안정하고 빈곤비율이 높은 기준 노인층과는 다른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수요의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2023년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2,600만명에 이르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소비비중은 매년 크게 성장

〈표-2〉 베이비붐세대 규모 및 고령인구 현황

구분	출생 시기	65세 진입시기	현재 연령	베이비부머 규모 및 비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2020년	2030년
미국	1946~1964	2011년	56~74세	7,912만 명 (24.6%)	16.6	20.3
일본	1947~1949	2012년	71~73세	972만 명 (7.7%)	28.4	30.9
이탈리아	1946~1970	2011년	50~74세	2,091만 명 (33.9%)	23.3	27.9
스웨덴	1946~1953	2011년	67~74세	116만 명 (11.8%)	20.3	22.2
한국	1955~1963	2020년	57~65세	716만 명 (14.6%)	15.8	24.7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수요 증가와 스마트양로시장 확대

- 고령인구의 돌봄정책이 기존 시설중심의 단순 수용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으로 전환되면서 노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설중심의 보호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 재가복지로 전환함으로써 스마트양로에 대한 시장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을 활용한 양로서비스 시장 확대)
- 중국 스마트양로산업 시장규모의 지속적 증가, 2020년 스마트양로시장 규모는 3.7조위안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 중국 전체 양로시장 규모의 42.9%비중 차지

2 고령친화산업 정책 현황과 동향

» 고령친화산업 정의와 개념

- 고령친화산업의 학술적 정의는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 정의 즉, 산업의 대상으로서 노인, 산업의 유형으로서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판매 등으로 정의
- 고령친화산업의 법적 정의로는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고령친화산업진흥법: 약칭 고령친화산업법)

- 법적 정의에 따르면, 고령친화제품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
- 마지막으로 최근 학술적으로는 질병치료나 재활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 중에 있고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에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모바일과 인공지능 및 로봇분야가 접목되면서 고령친화산업의 영역도 크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 2조

-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 용품 또는 의료기기
-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다. 노인요양 서비스
- 라. 노인을 위한 금융 · 자산관리 서비스
-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바. 노인을 위한 여가 · 관광 · 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표-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고령친화산업 육성분야

제1차 계획 (2006~2010)	제2차 계획 (2011~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우수제품 상용화 기반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제품 · 서비스 상용화 지원 확대 •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등수요 기반 마련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3차 계획 (2016~2020)	제4차 계획 (2021~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산업 육성(IT 연계스 마트케어, 관광, 식품 등) • 사용자 중심 제품 개발 • 종합지원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돌봄 체계로 진화 •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 산업 육성 • 고령친화기술 혁신위원회 구성 • 고령친화산업 R&D 확대

» 고령친화산업 육성 관련 정책 현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부터 4차 계획까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세부 정책 제시
- 1차 계획에서는 고령친화산업 발전기반 마련 및 우수제품 상용화 기반 마련 제시, 4차 계획에서는 고령친화산업 R&D 확대
-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강화(ICT기기 활용 건강정보 측정 및 모니터링, 전문가 비대면 건강컨설팅 등) 제시
-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 (스마트 돌봄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돌봄로봇 및 일상 생활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과 함께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
- 또한,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기술 혁신위원회 구성,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 및 기획, 산업육성 지원,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로드맵, 리빙랩 고령친화센터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
- 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에서는 고령친화 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으로 AgeTech 활용 돌봄로봇 및 기술개발 중개서비스 강화 추진 방안 제시
- 고령친화기술 활용 일상생활 지원 돌봄보봇 개발 및 수요자 중심 고령친화서비스 실증 연구 추진 예정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AI·IOT, 돌봄 로봇, 보조 기기 등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추진 예정, 단기적으로는 고령친화산업, 돌봄로봇, 스마트서비스 등 분야별 고령친화혁신기술 개발 추진

국가주도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필요하다

〈표-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고령친화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방향

구분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AgeTech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 불충분, 불균등 돌봄 및 의료자원 한계 보완,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지원 돌봄로봇 개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실증 연구 추진 * 돌봄기술개발 및 중개연구 : 실내이동, 돌봄로봇 및 영향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R&D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보행 등 생활안전, 디지털 격차해소 등 고령자 관련 R&D지원 확대 추진
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IOT,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도입 및 분야별 연계방안 마련 * 단기 : 고령친화산업, 돌봄로봇, 보조기기, 스마트서비스 등 분야별 기술 개발 * 중장기 : 노인장애인 재활·자립·돌봄 R&D 추진

자료 : 최인희(2023)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노인돌봄의 변화와 성인지적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해외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육성지원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세계 고령친화산업 규모는 2017년 7조 \$에서 2021년 12조 \$로 1.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차원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전략 마련 중

○ 특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 강화

※ (미국, 일본)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개발 및 상업화 지원을 위한 물리적 기반 구축 / 국립노화연구소 및 장애재활 연구소 등을 통해 노화로 인한 기능지원의 제품개발 및 상업화 지원(미국), ICT활용 첨단의료 및 헬스케어 해외시장 진출전략 마련(일본)

〈표-5〉 해외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현황

구분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비고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노화연구소(NIA)와 국립장애인재활연구소(NIDDA)에서는 노화현상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및 재활 지원 관련 기술의 개발지원, 개발된 제품의 사용성테스트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상업화를 지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구분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비고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에서는 S-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고령사회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시스템의 개발” 수행 아베 정부는 2020년까지 고령친화산업 시장을 50조엔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첨단의료서비스, 헬스케어산업 확장, 해외시장 진출 등 추진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표준화 ICT활용 첨단의료 및 헬스케어 확장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사업 발전을 위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을 통해 고령산업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양로서비스, 위생보건, 일상생활용품, 금융 등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 고령친화산업 지원 정책은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고령산업 조직의 고도화, 고령산업시장 질서의 규범화, 기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령친화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과 취업 장려, 기술정책 등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들로 구성 	계획수립 및 인력양성

〈표-6〉 주요국가 고령산업 유망제품 및 품목현황

국가	유망제품	유망사유	진출방안
프랑스	고급요양원 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력이 탄탄한 고령 인구 증가로 이들에 특화된 요양원이나 호텔, 여행서비스 수요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서비스의 기능과 내구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 실버케어 로봇 등 생소한 제품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중요 제품군별로 통용되는 인증을 사전 획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
	지능형 서비스로봇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인력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부족, 이를 대신할 서비스로봇 수요 증가 	
이탈리아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블루투스기능 탑재 소형 의료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의료보험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보험 및 사립병원 이용 증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선 CE를 비롯한 각종 인증 및 규정 충족 필요 수입업체는 제품 통관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전 등록 필요 한국산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은 잘 알려져 있으나 사후 서비스 구축 등은 개선 필요
	스마트 시니어 비즈니스 제품/서비스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시니어용어플리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층 증가 및 이들의 경제활동 기간이 연장되면서 생산력 확보를 위한 IT 기술 및 스마트 기기 필요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탈리아어 지원은 필수 제품/서비스 교체주기가 빠르므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완 필요

국가	유망제품	유망사유	진출방안
오 스 트 리 아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홈 (원격홈콘트롤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층의 건강관리, 생활편의 증진을 도울 스마트 시스템에 대한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에서 대형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주도 정부 주도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관련 정부부처/기관 및 사업 추진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요양소 설비 및 의료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인구 및 기대수명 연장으로 의료/요양원 관련 설비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국적 유럽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가운데 특화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제품 관련 틈새시장도 존재 병원 등 의료시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중앙부처에서 일괄 구매하는 추세
	전기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층의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편의성, 친환경성을 중시하는 E-mobility에 대한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층 등 수요계층 다양화, 자전거를 즐기는 국민 성향, 정부의 보급 노력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음
스 페 인	이동보조기구 (전동휠체어, 휠체어 리프트 및 전동 휠체어 램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인구가 자유롭고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돋는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층의 구매력이 안정된 편으로 경기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 여러 부가기능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 유리할 전망
	고령층 맞춤 IT 제품 (노년층 타깃 휴대전화 및 어플리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층의 컴퓨터, 각종 이동통신기기 사용 증가세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건강관리 원격 서비스 개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기능 대신 응급구조 요청 등 꼭 필요한 기능만을 탑재한 제품이 주로 출시되는 추세 건강관리, 생활편의 증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 증가
	미용제품/서비스 (기능성 화장품, 피부미용 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 화장품 수요가 많은 편 안정적인 구매력을 바탕으로 고령층이 고가 화장품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국적 유명브랜드들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신규 브랜드의 진입이 까다로운 편

자료 : Kotra(2015). 유럽 실버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2). Global Market Report 15-023

» 고령친화산업 시장 현황

- 국내에서는 고령인구 증가와 고령친화산업 시장 확대에 따른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 전략적 육성지원 필요
- 국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현재 72.8조 원으로 2010년 33.2조원에 비해 약 두배 이상 증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 국내 고령친화산업 중 최근 가장 높은 성장을 나타내는 산업은 요양서비스로 연평균성장률 16.6% 예측하고 있고, 특히,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시장 규모는 2012년 1.2조으로 매년 12.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3.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그림-1〉 글로벌 상위 실버경제 규모 추이(단위: 달러)



자료 : Brooking(20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2) 재인용

- 해외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은 실버경제의 규모가 2020년 2조달러에서 2030년에는 3.5조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GDP의 절반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 유럽연합도 실버경제의 규모가 2020년 3.7조달러에서 2030년 5.0조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산업에서 3번째로 높은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도 재정투입 및 사회자금 조달을 확대해 부양형, 요양형, 의료형 양로시설 건설 추진할 계획이고 간호간병 서비스 우선 확대와 함께 의료위생서비스 시스템 및 사회양로 시스템 완비한 노인요양원 확대 계획

- 중국고령자사업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노인간호원 설치, 양로서비스 활성화 등의 정책기조로 다수 해외 고령친화기업이 중국시장 진출

〈그림-2〉 중국시장에 진출한 해외 고령친화기업 현황



자료 : KOTRA(2020)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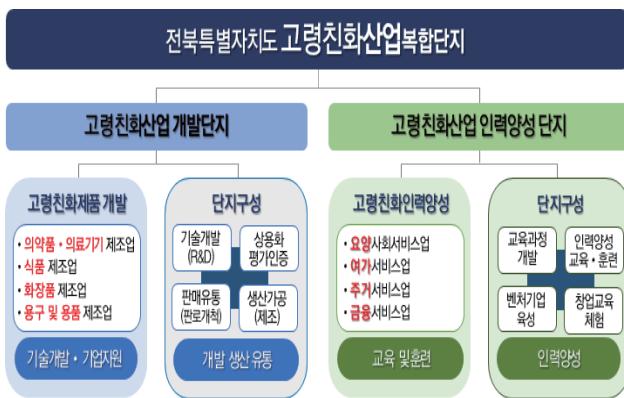
3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향과 과제

»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방향

- 전북특별자치도를 미래성장동력인 고령친화산업 거점도시이자 고령친화산업 R&D 핵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 전략 제시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국 등 해외수출시장 겨냥한 연구개발 및 생산·수출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
-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산업은 내수시장보다는 중국 등 아시아를 겨냥한 해외 시장 중심의 수출산업 주도로 정책지원
- 중소기업 중심의 취약한 고령친화산업의 기술기반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정책지원을 통한 혁신적 고령친화제품 개발과 상용화 도모
-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에서 ‘시험평가’ 그리고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의 하드웨어를 집적화하여 고령친화 산업생태계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의 거점도시 육성
- 미래신산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실버산업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인력양성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조성 필요
-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는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단지와 민간기업 생산단지, 부대사설 단지로 조성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두축으로 실버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는 고령친화제품과 고령친화 서비스로 전문화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개발 단지에는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중심으로 산업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단지는 교육과정개발, 창업교육, 벤처기업 육성 등의 교육 및 인력양성 관련 인프라로 구축

〈그림-3〉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방향



〈그림-4〉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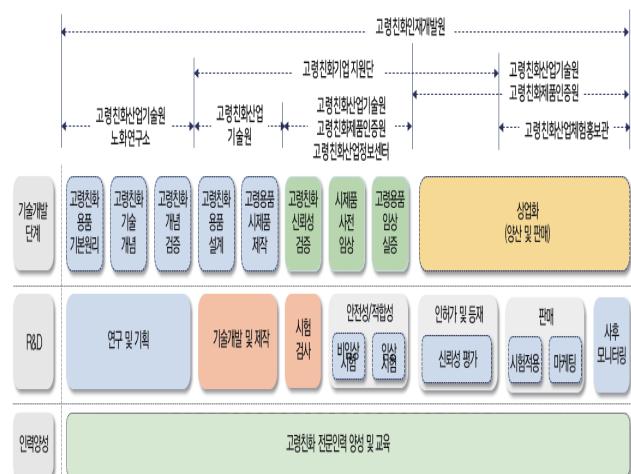


- 세부적으로 고령친화제품개발 클러스터는 고령친화 제품의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증, 시장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하고 고령친화인력양성 클러스터는 교육과정개발, 인력양성 교육훈련,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인프라로 구축

- 고령친화제품은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개발된 고령친화제품 대상 표준화 및 인증 그리고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등 관련 인프라로 구축
- 고령친화사업기술원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 등을 진행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노인특성에 맞는 안전성과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실증 인프라 구축

- 실증이후 결과분석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최종 개발제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을 통한 시험적용을 거쳐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기술표준화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물리적 기반 구축

〈그림-5〉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전주기 지원과정 및 관련 인프라 구축(안)



»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과제

-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는 총 4단계로 건립 추진(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기반 조성, 고령친화제품 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고령친화산업 글로벌 진출, K 고령친화 산업 육성 공급망 확대)

-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에 이어 2026년 종합계획 수립에 기초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지정, 그리고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 개발(2027년) 등의 절차로 진행



-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이후 단계별 전략과 로드맵 구상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설립 추진
-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입주기업 인센티브 마련, 분양홍보를 위한 기업유치, 입주기업 정보 및 실적관리,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투자유치 업무 총괄 지원 추진
- 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및 분양 홍보를 통한 기업 유치, 입주기업 정보 및 실적 관리,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해결 지원,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투자 유치 등 실무 총괄
-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국세, 지방세 등)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관련 특례(규제샌드박스 등), 국제협력 등의 기업 맞춤형 지원 필요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20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3) 재인용

최인희(2023)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노인돌봄의 변화와 성인지적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tra(2015). 유럽 실버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2). Global Market Report 15-023

Brooking(20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2) 재인용

KOTRA(2020) 재구성

ISSUE BRIEFING

vol.334



발행인_전북연구원장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9 772508688004
ISSN 2508-688X